

■ 민주 광주시장 경선 난타전 시작

이용섭·정동채 “강후보 애들 보채기 정치하지 말라”

강운태 “벌써 네거티브냐... 정책선거 하자”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과 정동채 예비후보가 18일 일제히 경선 경쟁자인 강운태 의원을 협공하고 나섰다. 한편으로 이들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3선 불출마’를 높이 평가했다. 경선을 3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상대후보 때리기가 시작되면서, 박시장 꺼안기에 나선 것이다.

▷난타전 시작했다. =선공은 이용섭 의원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운태 의원이 최근 정세균 대표를 만난 후 ‘광주시장 경선에 당선(黨心)은 없다’는 말을 언론에 전하고, 선배가 고심에 찬 결심(박광태 시장 불출마)을 하는 데 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하는 등 ‘애들 보채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후보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장 후보라면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고 폭넓은 정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 측은 유한식 대변인은 보도자료 내고 “강 의원이 어제 오전 자칭한 기자회견 때 출처 불명의 ‘민주당 광주 우대당원 및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조사 결과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중앙당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채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 자신에게 유리한 경선방식과 원칙을 고집하고,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강 의원이 당 대표이고, 공심위

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입당, 탈당, 복당 등을 수차례 반복한 강 의원이 최근 경선 방식에 대해 보인 행태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후보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광주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강 의원이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한 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당의 조사가 임의로 유출된 것이라면 중앙당에서는 유출경위와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 측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강 의원 측은 당원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해서는 “내부 참고용 자료를 기자회견 현장에 가져간 것이지, 외부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 보도되지도 않아 공식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과거 당원 명부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시장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광주지역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 전략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모든 후보들이 정책선거를 치르는데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박 시장 높이 평가=강운태 의원은 이날 “그동안 시장을 이끈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후배들을 위해 결의에 찬 용단”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결정하는 박광태 광주시장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고 물러나는 데

선배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생각된다”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밝혔다.

정동채 예비후보도 “지난 8년간의 노고를 인정한다”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박시장의 행보가 민주당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에 부합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일 예비후보는 “박 시장의 ‘아름다운 퇴진’에 공감한다”면서 “시민들도 박 시장의 고뇌에 찬 결단을 높이 살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갑길 예비후보는 “민주화운동 동지이자, 동료동계 선배인 박 시장의 용퇴에 아쉬운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운태 양형일 이용섭 정동채

이용섭-전갑길, 이용섭으로 단일화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 단일화에 합의한 이용섭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이용섭 의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사진)

이 의원과 전 전 구청장은 18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여론조사를 거쳐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도가 앞선 이 의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이 앞으로 이 의원의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강운태, 이용섭 의원,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과 양형일 전 의원 간 단일후보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단계 단일화 가능성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의 1단계 후보단일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2단계 후보단일화를 거론하는 선부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현재 6명의 광주시장 후보군 중 박광태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용섭 의원이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과의 행보가 민주당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에 부합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일 예비후보는 “박 시장의 ‘아름다운 퇴진’에 공감한다”면서 “시민들도 박 시장의 고뇌에 찬 결단을 높이 살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갑길 예비후보는 “민주화운동 동지이자, 동료동계 선배인 박 시장의 용퇴에 아쉬운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에서는 여론조사 지지도 선두인 강 의원에 대해, 나머지 두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박광태 광주시장의 강 의원을 지원할 경우 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는 게 지역정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반면, 양·정 단일 후보가 강 의원 쪽으로 2단계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라 예측도 있다. 양형일 후보는 정동채 예비후보도 단일화에 합의하고, 이날 중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강 의원이 최근 정동채 의원 쪽과 접촉하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이 지역정치권에 퍼지고 있다. 정 의

강운태 맞서 ‘열린 우리계’ 뭉칠수도

양·정 단일후보 강 의원과 연대도 가능

으로 알려졌다.

양형일·정동채 두 후보 측은 500~700명의 시민에게 시장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고 서울의 2개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여론조사 방법. 하지만, 양측 모두 협상단에 모든 것을 위임한 상황이어서 이날 중 합의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간 후보단일화가 완료되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 양형일 또는 정동채 예비후보 중 1인 등 모두 3명의 후보만 남게 된다. 이 경우 관심은 2단계 후보단일화 여부. 양·정 두 후보 중 누구도 단일화하든 3명의 후보 중 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열린우리계다. 따라서 지역정치권 일

원도 지방선거 후 실시될 전담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인 강 의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두 의원 간 연대가 가능하며 이 연대가 실현될 경우, 양·정 단일 후보가 강 의원과 2차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1차 단일화 후 여론조사 추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1강 2중, 2강 1약 등 지지도 구도에 따라 다양한 단일화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3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도 있다. 패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도 포기보다는 완주를 통해 조직력을 다져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번엔 ‘현역 단체장 평가’ 파동

시민공천배심원제에 이어 현직 단체장 평가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구도에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소속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 후보 압축 등 공천 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18일 오영식 민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당 공심위는 현직 단체장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 그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며 “광주와 전남, 전북 기초단체장의 경우, 상대 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

심사총점의 10%를 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등이 대상이며 기초단체장은 전남 15곳, 전북 12곳, 광주 4곳,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각 1곳 등 총 39개 지역에 대한 현직 평가가 완료됐다”며 “총 39개 지역 가운데 11개 지역이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간사는 이어 “인지도, 만족도, 교체 의향의 항목으로 평가지수를 구성했으며 교체 의향에 70%의 가중치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공천 과정에 반영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구도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광주 1~2곳, 전남 3~4곳의 기초단체장이 최하위 점수를 받아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특히,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거론되는 전남지역 현직 단체장이 후보 압축 과정에서 탈락되는 것이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단체장은 최종 경선 과정은 물론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무소속 후보에 상당한 고전을 할 수 있다”며 “현직 심사는 단체장의 기록권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추후 보완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 등에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심사 감점이 전체 총점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경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효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현직 심사가 후보 압축과정에 도입되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이 크게 잘못하지 않을 경우, 컷-오프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매각공고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지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배포, 현판, 간판, 계약서, 어캐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총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기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